

아르메니아, 센다이의 기회 강조하다.



아르메니아 국토부와 긴급상황부 장관 Armen Yeritsyan은 미래의 국가 탄력성을 위한 발판으로써 일본 센다이의 세계 재난위험경감회의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UNISDR)

By Andy McElroy

2014년 12월 03일, 예레반 – 오늘날 정책입안자들은 더 안전하고 재난에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동적인 노력의 중요한 순간인 다가오는 제 3회 세계 재난위험경감회의(WCDRR)의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 받았다. www.wcdrr.org.

아르메니아 국토부와 긴급상황부 장관 Armen Yeritsyan은 더 많은 국가들이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재난 후 대처가 아닌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발판으로써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 아르메니아의 사례를 보면, 2010년의 국립 DRR 플랫폼의 설립은 국가 수준에서 재난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단체들에게 훌륭한 행사의 수단으로 역할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를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장관 Yeritsyan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재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순환은 재난 후 반응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고하고 국가가 재난위험경감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센다이 회의를 고대하고 있다.”

Yeritsyan은 예레반에서 그의 부처가 주관한 두 번째 ‘효과적인 국제 재난위험경감회의를 위한 초석’으로써의 대중의 인식’오프닝에서 전했다.

증가한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는 효고행동강령(HFA)에서 강력한 재난위험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석 달 뒤 개최될 센다이 회의에서 발의될 post-2015 재난위험경감체제에 이와 같이 남길 예정이다.

HFA의 Armenia의 장 Nikolay Grigoryan은 1988년 12월 7일에 있었던 스피탁 지진의 다가오는 26년 추모일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비극에 고통받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스피탁 지진은 25,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대다수의 사상자들은 지진이 일어났던 오전 11시 41분에 학교에 있었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스피탁 지진의 가장 큰 첫 번째 교훈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Grigoryan은 말했다.

“당시의 내 스스로를 예를 들어보면, 나는 너무 무지했고 큰 좌절을 경험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도 교과서도 없었다. 경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그 것은 막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우리는 직감에 의지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더 재해에 강한 탄력성을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짜: 3 Dec 2014

자료: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